



[산업] 풀체인지 '올 뉴 K3' 새 심장으로 경차급 연비 실현 08



Economy

코스피	2395.19 (+9.81)	코스닥	829.39 (-13.85)
금리 (국고채 3년)	2.28 (-0.02)	환율 (원/달러)	1084.50 (-0.10) (13일)

GM 군산공장 폐쇄 쇼크... 'Made in Korea' 저무나

직원 2000여명 구조조정 크루즈·올란도 모델 단종 카허카점 사장 "직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13일 오전 폐쇄가 결정된 제네럴모터스(GM) 전북 군산 공장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이 결국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다.

13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3위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의 공장 폐쇄 방침은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전북 군산 지역 경제도 패닉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군산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2000여명(계약직 포함)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또한 군산공장에서 생산했던 크루즈와 올란도 모델도 단종될 전망이다. <관련기사2·3면>

GM과 한국지엠은 5월 말까지 군산 공장 폐쇄와 직원 약 2000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본사가 현재의 생산설비 등을 유지한 채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경영난 극복을 위한 대표적 첫 자구 노력을 위해서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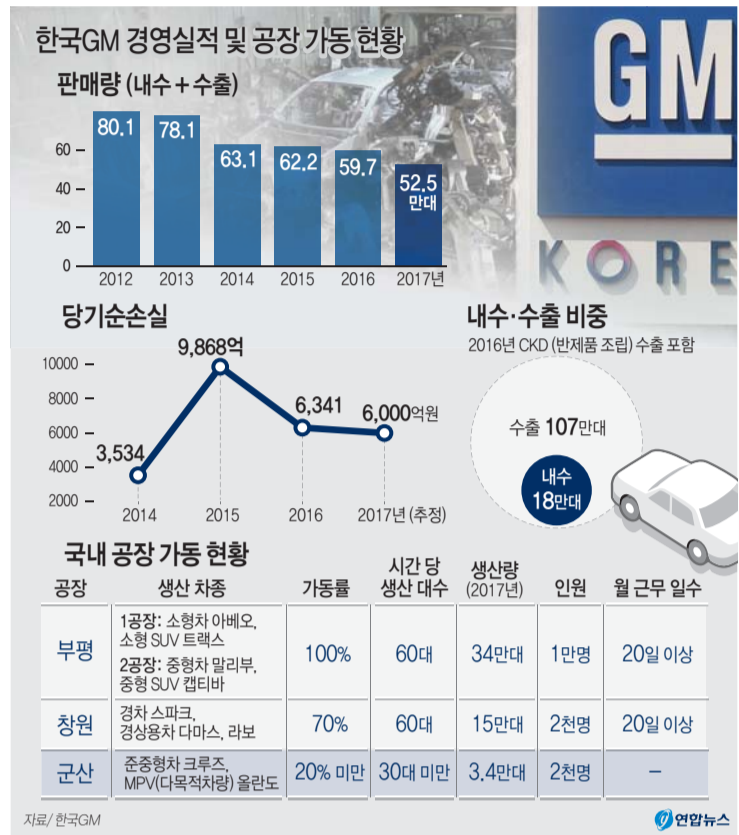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은 모기업인 GM의 한국지엠 구조조정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의 실적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단행될 구조조정의 1순위로 군산공장이 꼽혀왔다. 크루즈와 올란도 등을 생산해온 군산공장은 그동안 생산물량 부족으로 작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최근 가동률이

20%를 밑돌면서 지난 8일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카허 카점 한국지엠 사장은 "해당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최근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지엠 임직원과 군산 및 전북 지역 사회, 정부 관계자의 헌신과 지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지엠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한국 내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독자여러분 무술년 파이팅하세요" "황금 개띠 해 '무술년' 메트로 독자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메트로신문 새내기 기자들(왼쪽부터, 정연우·구서운·임현재·나유리·유재희·김현정)이 한복 자태를 뽐내며 메트로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협찬=베를린북 일산점 /손진영 기자 son@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13일 직권 남용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19개 공소사실 중 ▲미르·K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강요)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등 1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범종 기자 joker@

롯데면세점, 주류·담배 남겨놓고 인천공항 철수

중사드보복 등 실적 악화에 공항공사와 '임대료' 이견차 2년간 영업적자 2000억 달해 2020년까지 예상적자 1.4조

롯데면세점이 중국 관광객 감소와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등으로 임대료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철수한다.

롯데면세점은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

류·담배 사업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한다. 이후 3월 중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 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현재까지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1기 사업 기간(2001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중 4845억 원, 2기 사업 기간(2008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 2조 6억 원 등의 임대

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인천공항공사와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5년 3월 진행된 3기 사업 입찰에서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추어 임대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드 보복은 물론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 시내 면세점 성장 둔화 등 대내외적 악

<1터미널>

재 요인이 겹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고 정상적인 영입이 진행되지 못했다.

실제 3기 사업 시작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은 총 4곳이 추가됐고 을 연말에는 3곳의 추가 오픈이 예정되었다.

지난해 2월에는 특허수수료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며 비용 부담을 키웠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4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5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ujin6326@



김민석, 아시아 최초 1500m 동메달

13일 오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경기에서 김민석이 힘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동계올림픽 빙속 남자 1500m에서 메달을 딴 것은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김민석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